

노 95. 7. 18

문화

포항, 여성영화 소재로 '지역 영화제' 첫 선

제1회 민들레 여성영화제

「로말드와 줄리엣」, 「내책상위의 천사」 등

포항여성회(회장 김숙자)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여성회' 창립기념으로 '제1회 민들레 여성영화제'를 열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여성영화로 비교적 구하기가 어렵고, 부담없이 여성문제를 다룬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여서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포항여성회 문화기획부장 김미선(26)씨는 여성영화제에 대해 "영화라는 매체의 장점을 살려 쉽고 재미있게 영화를 감상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1회 민들레 여성영화제'에 소개된 작품들은 대형 액정비전으로 상영됐으며, 관람료는 무료였다.

첫날 상영된 작품은 '로말드와 줄리엣'(90년작 프랑스), 1990년 프랑스 폴린 세로 작품으로 요구르트회사 사장인 백인 로말드와 흑인이면서 뚱뚱

하고 못생긴 이 회사 청소부 아줌마 줄리엣의 사랑, 그리고 비인간적인 출세경쟁과 사생활의 세계를 유머있게 고발하는 한편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 흑인여가장의 가난하고 우울한 일상의 처절함을 웃음속에서 더욱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다.

로말드와 줄리엣의 결합은 사회적 지위와 부가 가난한 계층적 열등감을 흡수하거나 사랑으로 돈과 안정을 사는 식이 결코 아니라 돈과 지위때문에 고통받았던 인간애와 인격적 자립을 꽃피우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로말드의 전 아내와 그녀의 새 남편, 줄리엣의 다섯 아이들, 그리고 로말드와 임신으로 더욱 뚱뚱해진 줄리엣이 모두 어울려 즐기는 마지막 정원 장면을 보며 우리는 마치 인종과 성과 계급을 초월한 진정한 공동체 가족의 생생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둘째날에는 '피아노'로 우리



셋째날에 상영된 유진선감독의 「매춘」 한 장면.

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인 캠피온 감독의 '내 책상위의 천사'(90년작 호주)가 상영됐다. 뉴질랜드 여성소설가 자네트 프레이밍의 자서전에 기초한 이 영화에서 제인 캠피온은 한 소녀의 어린시절을 통하여 훗날의 '작가'가 어떻게 탄생되는가를 여성의 시각에서 차분하고 따뜻하게 그려낸다. 자네트는 우여곡절 끝에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 대신 작가의 길을 택하게 되는데 결혼이나 가족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였다.

마지막 날에 소개된 작품은 독일 퍼시스 에드론 감독 작품인 '바그다드 카페'(87년작 독일) 영화주제가 'Calling You'가

더 유명한 작품으로 못생기고 뚱뚱한 독일여성과 황갈색의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바그다드 카페'라는 이름의 식당주인인 흑인과의 우정과 사랑이 두터워져가는 과정을 섬세한 심리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제1회 민들레 여성영화제'에 상영된 네편 모두를 관람한 양은경(25)씨는 "지역에서 여성영화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참가했는데, 재미있고 감명깊게 영화를 감상했다"고 말했다. 포항여성회는 올 가을에 더 넓은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작품으로 여성영화제를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포항=조자명 기자〉